



기술강산

12

주체112(2023)
루게 제412호 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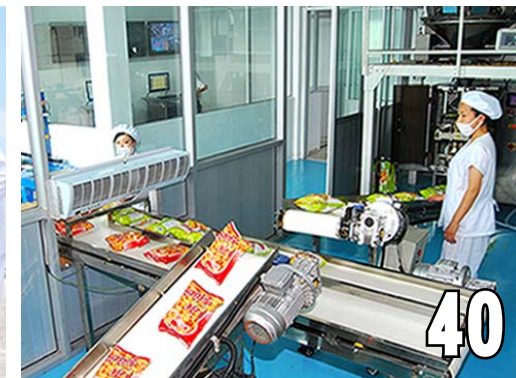


표지: 자신만만한 배짱을 안고

첨단수준의 로보트개발에 지혜와 정열을 합쳐가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청년과학자들의 모습이다. 과학기술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자신만만한 배짱을 지닌 이들에 의해 국가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 2 || 정찰위성 성공적으로 발사
- 6 ||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 8 || 활발히 전개되는 산림조성과 보호사업
- 10 || 사회주의를 총대로 수호하시어
 - 수기
- 11 || 자애로운 그 영상 언제나 안고합니다
- 12 || 해외동포들의 진어버이가 되시어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 13 || 은공예 《준마》
- 14 || 선거제도를 통해 보는 조국
 - 일화
- 15 || 위민헌신의 나날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 16 || 단합의 리념아래
- 18 || 다양한 김가공품들을 생산한다
- 20 || 건축부문의 유능한 전문가들로
- 22 || 로병들과 인연을 맺고
- 24 || 화목한 집단에 넘치는 미덕의 향기



- 26 || 의상미술분야의 실력가
- 28 || 웃음을 주는 사람들
- 30 || 인기를 끄는 관상식물상점
- 33 || 장애인안마사
- 34 || 꿀벌마리수를 늘려나간다
 - 조국의 품에 안겨
- 38 || 사향주사약을 개발한 의학자
 - 고향소식
- 40 || 고향땅을 다시 밟아본다면
 - 민족의 향기
- 44 || 특색있는 비빔국수를 맛봅시다
- 46 || 조국은 우리 삶의 영원한 품입니다
 - 우리 나라 력사에 존재한 국가들
- 48 || 조선봉건왕조 (2)
 - 조선의 옛 화가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 50 || 참대를 즐겨 그린 류덕장
 - 력사이야기
- 51 || 청렴한 부부
 - 력사인물
- 52 || 15세기 군사지휘관이며 기술자였던 리천
- 53 || 조선의 단청 천정무늬
 - 조선의 명산
- 54 || 구월산



정찰위성 성공적으로 발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주체 112(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하여 발사후 705s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정찰위성발사는 자위권강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권리이며 적들의 위협천만한 군사적준동으로 나라와 주변지역에 조성된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에서 정찰위성발사를 참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정식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장 장창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찰위성발사를 참관하시고 우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을 제고함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철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련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였다.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조국인민은 바라는 모든 꿈과 소원을 다 이루어나갈 것이다.

오늘 조국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사회주의애국운동, 증산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일고있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지하막장들에서, 가없이 펼쳐진 전야와 과학연구기지 등 인민이 있는 모든 곳에서 나라에 보탬을 주기 위한 애국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지금까지 나라에서 우리를 키워주고 보살펴 주었는데 너무도 한 일이 적습니다. 이 나라 공민으로서 웅담 해야 할 일을 했을뿐입니다.》

이것은 한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의 소박한 목소리이다.

이렇듯 사심없는 인민의 마음들이 모이고 합쳐 조국을 받드는 주춧돌이 되고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국가를 힘차게 떠미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있다.

돌이켜보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혁명의 력사에는 실로 수많은 애국운동들이 기록되어있다.

건국의 나날에 벌어졌던 애국미헌납운동과 철도운수부문에서 일어났던 김회일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나의 고지》운동과 전시증산경쟁운동, 천리마시대와 사회주의건설시기에 벌어진 각종 형태의 운동들...

그 하많은 운동들과 더불어 조국은 력사의 온갖 준령들을 성과적으로 넘어왔다.

이 애국의 전통은 오늘도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국가부흥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하고 옹계 이끌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호소를 받들고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자강도공급탄광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애국운동, 증산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올리였다.

자강도공급탄광은 주체66(1977)년에 사회주의애국탄증산투쟁을 발기하여 석탄공업부문을 들끓게 하고 온 나라에 속도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는데 기여한 자랑스러운 력사가 깃든 단위이다.

당시 이 탄광의 청년생산갱 채탄1중대원들은 《피바다》근위대를 뚫고 《더 많은 석탄을 증산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으로 보답하자!》고 하면서 계획외에 매달 1 000t의 석탄을 증산하기 위한 대중적애국운동을 벌리였다.

오늘날 자강도공급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 지어 가족들은 자기 탄광이 사회주의애국탄증산운동의 봉화가 떠오른 고향이며 자신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의 후손이라는것을 가장 큰 자부심으로 간직하고있다.

바로 이런 그들이기에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어 제 집일보다 탄광일을 더 귀중히 여기고 한t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어 나라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회주의애국탄증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들은 지난해보다 훨씬 높아진 생산계획을 매월 넘쳐 수행하면서도 지난 2월에는 2 000여t, 4월에는 4 000여t의 석탄을 증산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자강도공급탄광에서 떠오른 한점의 불꽃은 삼시에 온 나라에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불길로 퍼져나갔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과 어촌,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과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 등 조국땅 곳곳에서 생산적양양이 련이어 일어났다.

룡등탄광의 채탄공들은 뜻깊은 전승절(7. 27.)까지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방직공업부문의 근로자들은 자기 정량의 2배, 3배이상의 기대를 맡아 2년분,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를 다 바쳐가는 각지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와 활기찬 투쟁으로 하여 련일 새 기준, 새 기록이 창조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용약 탄원하고 인민들은 성의 있는 지원물자들을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보내주었다.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은 힘이나마 보탬을 주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며 성장의 걸음걸음을 참되게 걸고있는 전국의 학생소년들도 조선소년단 창립 77돐을 맞으며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인민군대에 보내줄 《소년》호방사포들을 마련하였다. 나이보다 애국의 마음이 먼저 자라난 새세대들이다.

단발머리치려니시절부터 오늘까지 수십년간 순회길을 달리고있는 직포공이며 고향의 산들에 푸른 숲 펼쳐가는 산림감독원들과 도로관리공, 하수준첩공, 신발수리공 등 남들이 선뜻 나서기 저어하는 직업을 택하고 변함없이 애국의 길을

걸고있는 사람들...

이렇듯 매 공민들의 애국의 열정과 성실한 노력으로 이룩한 하나하나의 열매들이 모이고 합쳐져 조국의 재부가 되고 거세찬 전진으로 되고있다.

하다면 조국인민특유의 충성과 애국은 어디에 원천을 두고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열렬한 매혹과 흠모이다.

인민은 누구나 잘 알고있다.

난관과 시련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이 땅위에 세인을 놀래우는 격동의 시대, 변혁의 시대가 어떻게 펼쳐지고 모두의 얼굴마다에 어떻게 웃음꽃이 만발하는가를.

사랑하는 인민의 무병무탈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인민의 나라의 강대함을 위하여 멀고 험한 길들을 앞장서 걸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놓아오신 불멸의 자욱을 인민은 언제나 가슴속깊이 새겨안고있다.

자연의 온갖 도전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을 굳건히 지켜주시였으며 집무실에 전국의 학생들이 입을 교복견본을 늘 걸어두시고 인민들이 제일 기다리는 생활필수품의 가지수와 질까지 일일이 마음쓰시며 천만식솔을 보살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이렇듯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자애로운 아버지께 누구나 매혹되었고 그 은덕을 간직한 심장들에서 충성과 애국의 마음이 끓어번졌다.

이 세상에서 인민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고 인민의 운명과 후대들의 미래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휘황한 미래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인민을 인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려는것은 천만인민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그 어떤 엄혹한 국난도 당의 위엄에 무한히 충실하고 국가의 부흥발전애 한몸 서슴없이 바치려는 조국인민의 이 억센 신념과 의지를 누구도 당하지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연옥

활발히 전개되는 산림조성과 보호사업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이라는 자각을 안고 조국인민들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은 주체108(2019)년 1월 모범적인 단위들에 사회주의애국림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된 후부터 보다 고조를 이루며 진행되고있다.

평양시에서는 산림복구를 위한 전망목표와 단계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산림조성을 위한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강동탄광에서는 일군들과 탄부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모두가 떨쳐나 짧은 기간에 양묘장을 훌륭히 건설한데 이어 선진적인 비배관리기술을 받아들여 많은 나무모들을 키워내었다.

그리고 나무심기도 적지적수, 적기적수의 원칙에서 진행하는 한편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책임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룡성은하피복공장, 평양온실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역시 담당림들을 수림화, 원림화하는것과 함께 산림보호사업에서도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또한 락량식료공장, 령남탄광, 강동석탄탐사대를 비롯한 수도의 많은 근로자들이 높은 공민적 자각을 지니고 나라의 국토를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키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평안북도와 평안남도를 비롯한 여러 도들에서도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이면 나무심기가 전국중적운동으로 진행되고있다.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잘해가고있다. 특히 창성군과 운산군 등에서는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변모시킬 마음을 안고 잣나무, 기름밤나무, 찔팡이나무, 다래나무와 같은 경제적가치가 높은 나무들과 약초들을 대대적으로 심어 산림자원을 늘이고있다. 군양묘장들에서는 해마다 수십종에 수백만그루의 나무모를 키워내고있으며 리들에서도 적지 않은 나무모를 생산하여 산들마다에 심고 가꾸고있다. 그런가 하면 구장군과 태천군, 연탄군 등에서는 있을수 있는 산사태를 막을수 있게 산림을 과학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성하고있다.

그들은 도로와 철길, 주민지가사이의 산사태발생위험지역들에서부터 산림을 조성하고있다. 특히 토양침식을 최대로 막을수 있게 큰키나무, 키나무, 떨기나무, 지피식물들이 다층구조를 이루게 하고있다. 그리고 자기 지역의 토양조건과 경사, 굴곡상태 등의 지형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지대별, 산지별특성에 맞게 수종을 선택하여 산림을 조성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산림보호사업도 잘하고있다.

그들은 이미 조성한 수많은 나무들마다에 병해충을 차단할수 있는 여러가지 이동식기재들과 살

충등을 설치하는것과 함께 곤충서식지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는가 하면 효능높은 생물농약들을 시비하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있다. 그리고 소방기재들을 착실하게 갖추어놓는 동시에 산불감시와 통보, 진화동원체계 등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있다. 하여 이 군들의 많은 단위들이 사회주의애국림칭호를 수여받게 되었다.

향토를 가꾸어가려는 각지의 학생들과 녀맹원들의 열의도 비상히 높아가고있다.

녕변군 남동고급중학교, 통천군 자산고급중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청년림, 소년단림을 잘 관리하여 학교가 사회주의애국림칭호를 받도록 하였으며 구장군, 박천군, 운산군, 해주시 등 전국의 많은 녀맹원들도 수림화, 원림화실현에 진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모범적인 단위들에 사회주의애국림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된 후 현재까지 4년간 전국적으로 근 2000개의 단위가 사회주의애국림칭호를 수여받았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강원도양묘장을 비롯하여 나라의 곳곳에 현대적인 양묘장들이 꾸러졌다.



사회주의를 총대로 수호하시여

조국에서 12월 24일은 뜻깊은 날이다. 이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신 날[주체80(1991)년 12월 24일]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90년대중엽 조국과 인민 앞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천만뜻밖에 당한 민족의 대국상, 련이어 겹쳐드는 자연재해,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

한 나라, 한 민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시련이었다.

조선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던 그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물려주신 귀중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끝까지 지켜가실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셨다.

오늘도 조국인민 누구나 잊지 못하는 다박솔초소, 그때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맞이한 새해 첫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이하야 다박솔초소를 찾으셨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아무리 배불리 잘 먹는다고 하여도 조국이 없으면 잠시도 마음이 편할수 없는것은 물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있다고 하여도 조국이 없는 슬픔은 그 모든것을 삼켜버린다는 말이 있다.

조국의 운명이 좌우되고 민족의 장래가 결정되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다박솔초소에 대한 현지시찰을 마치시고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전호가의 흠뻑새도 말고 인민군군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포연탄우도 함께 헤치는 최고사령관이 되려고 한다고 하시었다.

못잊을 그날과 더불어 그이께서는 언제나 최전선에 계시었다.

그때부터 조국인민은 매일같이 TV에서 위장망을 친 최전방지휘소나 바람세찬 고지우에 서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이께서는 군대가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는, 사상이 없는 총대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시고 전군에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며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키우시기 위해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군인들의 훈련모습도 보아주시면서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튼튼히 준비된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었으며 그들이 리용하는 교양실과 병실 등을 돌아보시며 병사들의 군무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뿐만아니라 전사들이 먹는 국맛까지 보시며 그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시었다.

주체87(1998)년 8월 어느날 군인들을 찾아가시던 그이께서는 오성산을 넘게 되시었다. 계속되는 장마비로 오성산의 벼랑길은 질척질척하여 위험하기 그지없었다. 긴장으로 온몸을 땀으로 적시던 일군들이 더는 오르실수 없다고 앞을 가로막아나설 때 고지에 인민군군인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자신께서 고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시며 계속 오르시었다.

다박솔초소와 초도, 판문점, 오성산, 351고지, 1211고지를 비롯한 조국방선의 전호가들에는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그이의 자욱이 새겨졌다.

이렇듯 그이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군력강화와 조국수호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나 전선길에 계시며 사회주의를 총대로 수호하시였기에 조국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떨치며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칠수 있었다.

그이께서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엄향심

수 기

자애로운 그 영상 언제나 안고삽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변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만집니다.

그 그리움은 한평생 오로지 인민을 위해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공장과 농촌, 학교와 병원 등을 찾으시며 자신의 온넛과 심혈을 다 바치신 그이에 대한 가장 숭고한 감정입니다.

우리 락량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100(2011)년 10월에 현지지도하신 단위입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몹시 불편한 몸이시였지만 여러가지 수지제품들을 생산하고있는 우리 영예군인들이 대견하시여 공장을 찾아주시였습니다.

공장의 연혁소개실을 다 돌아보시고 현장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생산현장을 멋있게 꾸렸다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습니다.

이윽고 기대를 능숙하게 다루는 영예군인들의 작업모습도 보아주시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질도 가늠해보신 그이께서는 우리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였습니다.

솔직히 우리들이 한 일이 있다면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 공장개건사업을 하면서 인민소비품생산을 멈춤없이 진행한 것이였습니다. 이것은 공장의 주인인 우리 영예군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생산과 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면서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진보수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자기들의 피와 땀으로 당에 기쁨을 드리겠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을 안고사는 영예군인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일이라고 값높은 평가를 주시는 것이였습니다.

이날 그이께서는 우리 영예군인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며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인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는 수지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우리들은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의 열화같은 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것인가를 다시금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우리는 그후 그이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당도록 하기 위한 제품생산에 총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생산공정을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완비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는 한편 이미 생산하던 제품의 질을 훨씬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에도 힘을 넣어 모양이 새롭고 리용하기에 편리한 수지일용품들의 가지수를 계속 늘여나가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제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있습니다.

우리 공장로동계급은 공장구내에 영예군인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였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을 매일 뵈으며 우리들은 보다 일을 더 잘해갈 결의를 다지군 합니다.

락량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지배인 강남익

해외동포들의 친아버이가 되시여

우리의 해외동포들은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언제나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땀땀이 살아 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해외동포들을 민족의 당당한 성원으로, 한집안식솔로 여기시며 온갖 믿음과 육친의 사랑을 다 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는 어려운 시기에도 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변함없이 보내주도록 하시었고 대지진으로 동포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따뜻한 정이 넘치는 위문전문과 거액의 위문금을 보내주시었다. 그리고 죽어서도 조국땅에 묻힐것을 바라는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평양에 해외동포 애국가묘를 세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주체81(1992)년 2월에 있는 일이었다. 그때 총련일군대표단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해당부문의 일군들을 통해 총련일군들만 오게 된 사연을 아신 그이께서는 서운한 안색을 지시면서 우리는 총련일군들뿐만 아니라 부인들의 운명까지도 다 책임지고있다고, 그렇기때문에 총련에서 축하단으로 올 때에는 부인들을 데리고 오는것이 인사이며 성의로 된다고, 앞으로 부인들을 데리고 오는것을 제도

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자기들만이 아니라 처자들의 운명까지도 말아주고 최상의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웅심깊은 사랑에 총련일군들은 눈시울을 적시였다.

그이의 동포애는 재중, 재로, 재미, 재카나다동포들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해외동포들에게도 뜨겁게 베풀어졌다.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으로 하여 조국이 시련을 겪던 시기 해외에서 사는 동포들을 위하여 늘 마음을 쓰시며 재중 동포들이 불편없이 조국에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요명절때면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을 경축행사장들에 불러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재중동포 예술단을 만나시여서는 그들의 공연도 보아주시고 공연을 잘했다고 축하도 해주시였으며 축하잔도 짙어주시면서 앞날을 축복해주시었다.

재미교포 문명자선생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친아버이사랑은 오늘도 길이 전해지고있다.

그이께서는 주체86(1997)년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3돐 추모행사에 참가하였던 재미교포 문명자선생을 만나지 못하는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며 그에게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서한에서

너사가 주석님께서 생존해계실 때나 우리결을 떠나신 이후에나 변함없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 활약하고있는데 대하여 잘 알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너사가 조국을 다시 방문하는 기회에 꼭 만나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건강하여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쓰시였다.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이께서는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주체89(2000)년 6월 현지지도로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조국에 체류하고있던 그를 만나주시고 아버지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동포들이 민족의 아들딸답게 살도록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뿐만아니라 지난날 조국과 민족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족적량심을 지니고 겨레를 사랑하며 분렬된 조국의 아픔을 절감하는 사람이라면 따뜻이 품에 안아 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그 품에 안겨 인생의 전환을 하고 값높은 삶을 누린 해외동포들은 수없이 많다.

해외동포들을 자애로운 한 품에 안아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아버지사랑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하기에 장구한 세월 세계의 정치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침략전쟁과 내전으로 수많은 피난민문제가 산생하든 우리 동포들은 존엄높은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 당당하게, 땀땀하게 가슴펴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일봉

은공예

《준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담대한 배짱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한 동포는 진귀한 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직접 수천리 먼길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은공예 《준마》를 성의껏 완성하였다.

준마의 앞발굽아래와 바닥부분에는 건강장수와 강의성을 상징하는 여러가지 장식을 형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재중동포 박철수가 드린 선물
주체107(2018)년 12월

선거제도를 통해 보는 조국

조국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선거제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근로대중이 얼마나 많이 선거에 참가하며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것은 선거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징표이다.

공민들의 정치적권리와 선거에서의 민주주의를 철저히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선거에 대한 규제조건들이다. 선거조건의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자유롭게 참가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

조국의 선거제도는 모든 공민들에게 그 어떤 차별이나 제한조건도 없는 자유로운 선거참가를 보장하고있다.

조국에서는 일반적, 평등적 선거원칙에 따라 17살이상의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나 한 선거에서 한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일반적선거원칙은 해당한 나이에 이른 공민들에게 그 어떤 제한이나 보류조건도 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수 있는 권리를 주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공화국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 참가할수 있으며 대의원으로 선거받을수 있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해외에 있는 조선공민도, 공화국국적을 가진 다른 민족의 사람도 이 권리를 가진다.

평등적선거원칙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행사에서 선거자들사이에 그 어떤 차별이나 특전도 허용하지 않는 원칙으로서 선거자들의 투표의 비중과 효률에서 차이가 없도록 한다. 이 원칙은 모든 선거자들을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투표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게 한다.

직접선거의 원칙이 철저히 보장되고있는 조국에서 각급 주권기관선거는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 원칙은 선거표를 선거자들 자신이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하고 출장 및 여행중에 있는 공민들에게는 선거이동증을 발급하며 선거장에 나오기 어려운 공민들을 위하여 이동선거를 조직하는 등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조치들에 의해 보장된다.

뿐만아니라 선거자들의 편의를 보장하여 선거구안에 선거분구를 조직하고 선거당일은

국가적인 쉬는 날로 정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과 실시, 절차들을 통해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최대한으로 보장되게 하고있다.

조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의 총복들이 대의원으로 선거되는 인민적인 선거제도이다.

조국에서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의원으로 선거될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지방주권기관선거들에서 대의원으로 선거된 사람들중에는 온돌수리공과 탄부, 산림감독원, 녀성들, 지식인, 체육인들도 있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조국의 선거제도는 모든 공민들이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며 또 선거받을수 있게 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때문에 선거날은 조국인민에게 있어서 참다운 인민주권을 다지는 의의깊은 날로, 경사스러운 명절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지성



인민의 대표를 선거하는 기쁨에 넘친 근로자들이 춤바다를 펼쳐놓았다.

일화

위민철신의 나날에

진주보석에도 비길수 없는 소중한것

주체104(2015)년 5월 어느날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기념촬영장에서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념촬영에 앞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한 고결한 의리심, 아름다운 도덕기풍을 발양하는데서 특출한 모범을 보인 여러명의 대회참가자들을 만나주시였다.

그들의 소행을 하나하나 들어주시면서 고무격려해주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미풍은 진주보석에도 비길수 없는 소중한것이라고 하시였다.

앞세워주신 항일의 로투사들

제4차 전국로병대회가 열린 주체104(2015)년 7월 25일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장으로 나가시기 전에 먼저 항일의 로투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그들이 기다리고있는 방으로 향하시였다.

감격에 겨워 어쩔바를 몰라하는 로투사들을 자애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삼륜차에 앉아있는 녀투사에게로 다가가시였다.

녀투사의 두손을 잡아주시며 각별한 정을 부여하시던 그이께서는 한 일군에게 오늘 대회가 오랜 시간 진행될수 있는데 할머니가 오래 앉아있어도 일없겠는가고, 요새 건강상태가 어떤지 근심이 된다고 하시였다.

일없다고 보고드리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시는듯 모두

대회장으로 나가자고 이르시였다.

일군들이 그이를 모시고 대회장으로 나가려고 할 때였다. 그이께서는 뜻밖에도 로투사들을 먼저 앞세우라고 하시였다.

관례를 깨뜨린것으로 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혁명선배들을 내세우는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의리라고, 오늘은 마땅히 혁명의 1세대들이 항일의 로투사들이 앞장에서 나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삼륜차에 앉은 혁명의 1세대들이 그이보다 먼저 대회장으로 들어서게 되였다.

우리 사회의 참모습

주체104(2015)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의 최북단 라선시의 큰물피해복구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수재민들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자신께서 직접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것같아 찾아왔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일군들로부터 당에서 라선시피해복구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고 많은 량의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등을 보내주어 인민들이 생활상안정을 찾았으며 당의 거둬지는 은정에 목이 메어 걱정의 눈물을 흘리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라선시가 큰물피해를 입은 이후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라선시에 대한 지원사업이 힘있게 진행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사회주의의 본태이고 미덕이며 서로 돕고 이끄는 교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라고 하시였다.

* * *

단합의 리념 아래

(진호에서 계속)

1932년 여름을 생각하면 그때의 일이 제일먼저 떠오른다. 그때 나는 밤잠도 자지 못하고 이 맹랑한 문제를 민족단합의 경륜과 항일구국의 대의에 맞게 처리할 방도를 찾으려고 마음을 썩이였다. 그 일때문에 십년은 감수했다고 말할수 있다.

공동의 적인 일본군과는 싸움 한번 변변히 해보지 못하면서도 동족인 우리하고는 금수도 낫을 붙힐 수치스러운 악행을 다하는 국민부군대의 소행에 대해서는 나도 끓어오르는 분노와 혐오를 금할수 없었다. 지휘관들과 상론해보니 그들도 다같이 노기충천하여 국민부파시스트들에게 철추를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아 떠들었다.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단단히 버르장머리를 때 줍시다. 그들이 죽어서 지하에 가더라도 두번다시 손에 동족의 피를 묻히는 일이 없도록 혼살을 내줍시다.》

차광수는 눈에 불꽃을 튀기며 국민부의 손에 쓰러진 동지들의 원한을 갚을 때가 왔다고 부르짖었다.

그리고보면 그 당시 우리를 둘러싸고있던 무장부대들은 어느것이냐 다 적인셈이였다. 독립군도 적이고 구국군도 적이고 마적도 홍창회도 대도회도 다 적이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이런 역경에 처하게 된것은 우리 부대가 구국군의 별동대라는것을 보증할수 있는 류본초와 같은 증인이 없는데 있었다. 우리는 류본초를 통해서 부대를 합법화하는데 성공할수 있었지만 류본초와 같이 유력한 증인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언젠가 사면팔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수 있는 위험

을 걸머지고있었다.

우리가 통화에 갔다오는 사이 우사령부대는 안도에서 철수하여 왕덕림부대와 함께 녕안현일대로 깊숙이 퇴각하였다. 안도는 자유지대로 남아있었다. 자위군은 싸움을 크게 해보지도 못하고 일본군에 속속 투항하였다. 그 당시의 자위군의 일부는 벌써 반만항일의 구호를 내던지고 일본군고문들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반동군대로 되었다. 중국인반일부대가 공산군주력군으로 알려진 우리 부대를 감히 소멸하려고 결심한것은 그들이 일본군의 지휘를 받는 반동군대로 전락되었기때문이었다.

국민부의 반공선전에 청맹과니가 되다싶이한 독립군의 잔당은 우리에게 대한 진속도 모르면서 반동화된 반일부대를 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려는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나는 심각한 사색을 거듭했다. 상대가 아무리 토비화되고 우경화된 군사집단이라고 하여도 한피줄을 나는 동족이고 또 구국투쟁에 몸을 바치고있던 사람들인것만큼 우리로서는 군사적방법에 의한 보복이나 제재를 추구할수 없었다. 어떻게 하나 그들을 정치적방법으로 설복하여야 하였다. 우리는 이토록 반일통일전선을 절대화하였다.

이렇게 되어 박훈을 책임자로 하는 몇동무가 독립군이 머물고있는 이도백하로 떠나갔다.

《박훈동무, 오늘은 총대신 입이 동무의 무기요. 총은 한방도 쏘지 말고 입으로써 독립군들을 설복해야 하오. 동무는 말주변도 좋고 인상도 씨원씨원한 사람이니 능히 그들을 감화시켜 미연에 죽전을 방지할수 있을것이요. 그 어떤 경우에도 무력행사는 절대금물임을 꼭 명심해야 하오. 우리가 여기서 총성을 한방만 울리면 민족

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은 끝장이 날수 있소. 어떻게? 동무의 성미에 맞지 않는 과업인데 꽤 해낼수 있겠소?》

내가 이렇게 묻자 박훈은 웃으면서 머리를 긁적거리였다.

《까다로운 과업이긴 하지만 해보겠소.》

나는 박훈을 떠나보낸 다음에도 송화강반을 오래도록 거닐었다. 오늘 밤만은 제발 총성이 울리지 말았으면 하고 속으로 빌었다. 박훈이 과연 독립군들을 설복해내겠는가 하는 우려와 걱정도 없지 않았다.

물론 그는 능력있는 선동가였고 수완가였다. 그러나 일단 성만 나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 그의 곰같은 성미가 나로 하여금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박훈의 그런 약점을 알면서도 그를 독립군의 진영으로 서슴없이 들여보낸것은 우리 부대에 그를 롱가할만한 활동가가 없었기때문이었다.

당시 이 분야에서 박훈과 견줄수 있는 인물은 차광수였다. 정황을 보면 마땅히 그가 한몫할 때였다. 그러나 차광수는 최창걸의 희생에 대한 소식을 접한 때부터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자기를 다잡지 못하고있었다.

(박훈이, 부디 성공하고 돌아오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거듭 뇌이면서 이도백하쪽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다행히도 내가 우려하던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독립군은 애국력량의 단합을 절절히 호소하는 우리 동무들의 해설에 감화되었다. 그들은 저들 상층부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있으면서도 행동에는 옮기지 못하던 우유부단한 태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무장을 바치고 우리 반일인민유격대 오에서 같이 싸울것을 흔연히 결의해나섰다.

독립군의 상층은 아직 우리와의 통합을 달가와 하지 않았지만 하층병사들은 대결이 아니라 합작을 하고 힘을 합쳐 같이 싸워야 한다는것을 피부로 느끼고 기꺼이 우리와 손을 잡게 되었다. 이것은 독립군과의 통합의 첫시작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또 하나의 어려운 고비를 무난하게 넘기였다. 량세봉과의 결렬에다가 최창걸의 희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덧붙여져 국민부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참을수 없게 되살아오르던 그때 우리가 민족대단합의 경륜을 위해 20대의 젊은이들로서는 쉽지 않은 도량과 인내를 발휘할수 있었던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만일 그때 우리가 리성을 잃고 복수감에 사로잡혀 국민부를 타도하였거나 독립군대원들과 무장대결을 하였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떳떳한 마음으로 후대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것이다. 300여명에 달하는 량사령의 부하들이 엄동설한에 합작의 기발을 들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오는 력사적화폭도 볼수 없었을것이다.

세상에 애국애족처럼 위대하고 순결하고 신성한 감정은 없다.

민족단합정신은 애국애족의 감정가운데서도 그 정수를 이루는 최고의 녀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해방을 위해 출범한 그 첫 기슭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민족단합의 리념을 변함없이 소중하게 간직해오고있으며 그것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있다.

(끝)



바다나물인 김에는 각종 비타민과 인체의 신진대사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것으로 하여 김은 비타민의 창고, 미량원소의 보물고, 풍부한 영양원으로 불리우고있다.

특히 황해남도 웅진앞바다에서 생산되는 참김은 맛이 좋고 사람들의 건강에 유익한 영양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 조국의 특산물로 손꼽히고있다.

평양시 통일거리에 있는 평양대성김가공공장에서 이러한 웅진참김의 1차가공품인 판김을 가지고 각종 김가공품들을 생산하고있다.

평양대성김가공공장 지배인 최미옥은 《공장에서서는 사람들의 식생활을 보다 개선하고 건강증진

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공품들의 질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 한편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보장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있다.

전반적생산공정들의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한 공장은 최근년간에만도 선진기술들을 받아들여 품질검사의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이었다. 이외에도 다시마가공품생산공정과 물고기간장생산공정 등 새로 꾸려진 생산공정들에 선진적인 소독설비들과 세척설비들을 갖추어놓아 가공품생산의 위생안전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도록 하였다.

공장은 새 제품개발사업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이룩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을 웅진참김의 고유한 맛과 영양분을 살리면서도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지향시키고있다.

자체의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개발한 조미김가루만 보더라도 맛이 좋을뿐 아니라 소화흡수율이 높아 그 인기가 대단하다.

판김에 조미액을 바르고 구운 제품인 구운참김도 가정주부들이 가공없이 김밥을 말수 있으며 출장이나 여행을 할 때 아무런 불편없이 리용할수 있어 사람들이 즐겨 찾는 대중식품으로 되고있다.

덧감재료에 따라 새우맛, 계살맛, 단맛 등을 나타내는 조미김은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즐겨 찾는 가공식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인민들이 선호하고 반기는 가공품들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공장의 제품들에 대한 인기령역은 계속 넓어지고있다.

현재 공장에서는 김졸임, 김장, 겹김, 썬김을 비롯한 김가공품들뿐 아니라 다시마, 조개, 낙지, 명태 등 여러가지 수산물로 15종에 60여가지의 가공품도 생산하고있는데 독특한 맛과 향기로 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건축부문의

유능한 전문가들로

- 평양건축대학 -



평양건축대학에서 교육의 질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대학에서는 교원들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내용과 형식, 방법을 선진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건설기계들의 설계 자료들을 립체적으로 분석할수 있게 증강현실기술을 리용한 교수방법을 받아들여 건설기계학 과목교육에서 인식효과를 높일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가상현실기술을 리용한 모래지형사판을 류역관리과목교육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큰물관리조절지식을 보다 원리적으로 터득할수 있게 하였다.

그러한 속에 올해에만도 30여건의 우수한 새 교수방법들이 창조되어 대학의 교육사업에서 뚜렷한 진전이 일어나고있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착안제작한 실험설비들과 프로그램, 다매체편집물들도 학생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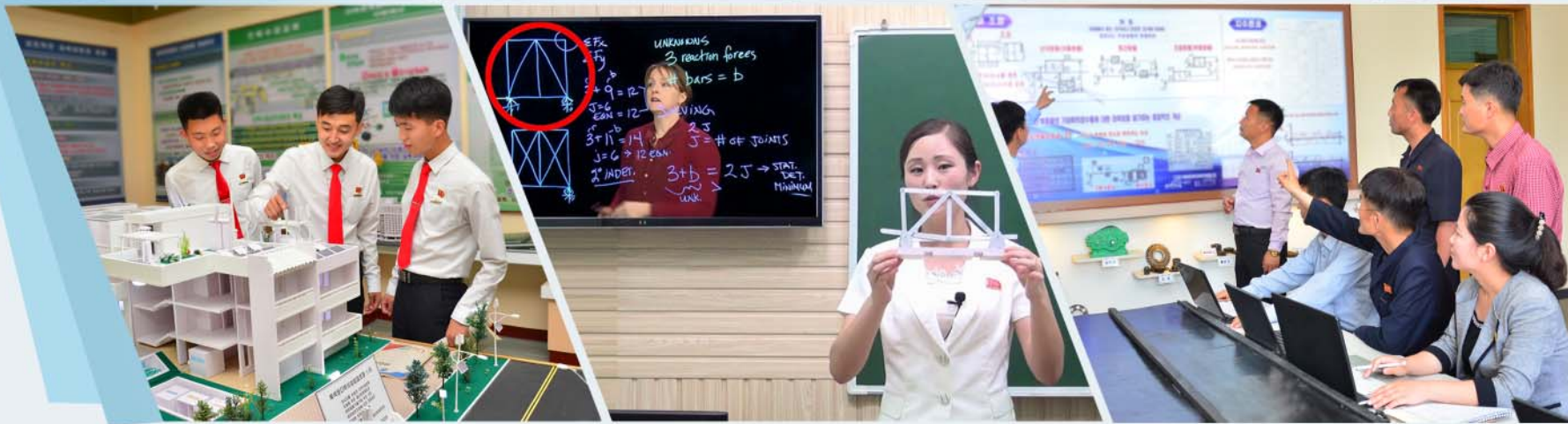
의 학과학습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지능건축모형만 보아도 학생들이 건축물의 지능화실현에서나서는 과학적원리들을 모형을 통해 보다 쉽게 리해할수 있도록 하여주고있다.

대학에서는 5차원설계 교육에도 특별한 힘을 넣고있다. 특히 건축설계에서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는 BIM의 5차원응용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교육사업에 구현하여 건축교육의 현대화수준을 높여나가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대학에서는 민족건축발전을 위한 교육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대학에서는 옛 건축물의 복원설계와 조사를 위한 새로운 학과목들을 개척하고 그를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해나가고있다. 그리고 가상현실공간의 《전통건축박물관》을 통한 교수방법 등 실리있는 교수방법들을 탐구도입하여 학생들이



민족건축설계와 관련한 지식을 보다 폭넓게 인식할수 있도록하고있다.

가상현실공간의 《전통건축박물관》에는 원시시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시기를 포괄하는 궁전, 살림집, 절, 루각, 탑, 무덤 등 조국의 대표

적인 건축유산들이 풍부히 수록되어있어 학생들은 제한된 시공간속에서 건축유산들을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그 원리를 빨리 습득하고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실기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주마다 창작의 날을 의의있게 운영하고있

으며 여러 계기들에 작품창작발표회도 조직하고있다.

하여 최근년간 대학은 전국적으로 진행된 건설부문에 대학생들의 설계경연에서련속 순위권에 입선하였다.

재능있는 건축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교육사업

이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지난 10년간 학생들속에서 400여개 대상의 9 100여건의 설계안들이 창안되어 현실에 도입되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로병들과 인연을 맺고



모란봉구역공업품종합상점 개선옷상점 종업원들은 평양시 모란봉구역 개선동에 살고있는 전쟁로병들과 혈연적뉴대를 맺고있다.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이곳 종업원들은 스스로 전쟁로병들의 친딸이 되어 그들의 건강과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특별한 관심을 돌려왔다.

사실 동주민들에 대한 봉사만 하자고 해도 일손이 바쁜 그들이 한두명도 아닌 10여명의 전쟁로병들을 친자식된 심정으로 돌봐준다는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곳 종업원들은 동안의 전쟁로병들에게 혈육의 정을 고이고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이었다. 그때 동안의 주민들을 위해 이동봉사를 나갔다가 개선동 72인민반에 살고있는 류재연전쟁로병의 집을 찾았던 개선옷상점 책임자 김봉실은 가슴뜨거운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는 류재연로병을 축하하러 많은 사람들이 집을 방문한것이다. 그를 더욱 감동시킨것은 그들모두가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로병과 그의 가정을 돌봐주고있다는것이였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자기편에는 전쟁로병들을 위해 성의를 다하고있다고 생각하던 김봉실이였다. 하지만 전쟁로병과 그의 가정을 위해 바친 이들의 아름다운 소행과 비추어볼 때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이 너무도 보잘것없는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원썩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한 전쟁로병들을 고마운 은인, 귀중한 혁명선배로 받드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할수록 자신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야겠다는 생각이 갈마드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김봉실책임자는 전쟁로병들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할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그의 이런 결심을 리인옥, 김성희, 문춘심을 비롯한 종업원들도 적극 지지해주었고 모두가 전쟁로병들의 친손녀, 친자식이 될것을 결의해나섰다.

동안의 전쟁로병들의 명단이 작성되고 건강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애로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토론했었다. 그들은 늘 색다른 생활필수품들을 한가지라도 더 마련해주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였고 생일날, 명절날은 물론 출근길과 퇴근길에도 전쟁로병들의 집에 들려 그들이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구석구석 살펴주었다.

이뿐이 아니다. 이뿐이 아니다.

이뿐이 아니다.



전쟁로병들의 옷을 마련하기 위해 지성을 바쳐가고있다.

이곳 종업원들은 전쟁로병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알아보고 귀한 보약들과 입맛을 돋구는 음식들을 마련해주었고 아흔번째 생일을 맞는 한 전쟁로병에게 생일상도 성의껏 차려주었으며 여러가지 가정용품들과 새옷도 마련해주었다.

전쟁로병들을 위하는 이곳 종업원들의 마음은 끝이 없었다.

류재연전쟁로병은 《개선옷

상점 종업원들을 대할 때마다 혈육의 정을 느끼군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귀중히 여기며 진정을 고이고 위해 주니 로병으로서의 긍지가 참으로 크다.》라고 말하였다.

오늘도 이곳 종업원들은 전쟁로병들을 위한 길을 변함없이 걷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상점의 종업원들이 휴식일과 명절마다 전쟁로병들을 찾는것은 관례로 되고있다.

화목한 집단에 넘치는 미덕의 향기



평양양말공장은 화목과 단합으로 맡은 일에서 성과를 이룩하는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공장종업원들은 서로가 진심으로 위해주고 도와주는것을 고상한 도덕률리로 여기고있다.
 특히 일군들이 종업원들을 위하는 마음은 보다 지극하다.

지난 8월 공장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두 떨쳐나 준비직장에서 일하는 김명숙의 결혼식을 성의껏 차려주었다.

그날 집단의 축복속에 모든 생활조건이 그뿐하게 갖추어진 살림집에 들어선 그는 뜨거운 격정에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떠나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하여주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진정어린 사랑과 정이 너무도 고마와서였다.

김명숙은 몇해전 오랜 병환으로 아버지를 잃고 올해 정초에는 급병으로 어머니마저 잃은 처녀였다.

뜻밖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애절함과 그리움으로 저녁시간을 보내고있을 때 그의 집으로는 공장의 일군들이 찾아왔다.

가정형편을 하나하나 헤아려보며 이제는 우리가 친부모, 친혈육이 되겠다고, 부모들의 당부대로 일을 잘하여 꼭 혁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일군들의 정깊은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눈굽을 적시었다.

그때부터 이어진 정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다. 일군들은 때로는 엄격한 아버지가 되어 타일러

주기도 하였고 때로는 다심한 어머니가 되어 사랑과 정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 이들은 그에게 이미 약속한 총각이 있다는것과 그가 일하는 직장파 작업반성원들이 결혼식준비를 하고있다는것도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한자리에 모여앉은 일군들에게 지배인 조금주는 말하였다.

《명숙동무에게 바쳐가는 직장, 작업반원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공장의 자랑입니다. 늘 그러했던것처럼 그의 결혼식을 우리 일군들이 앞장에서 의의있게 차려줍시다.》

지배인의 호소에 일군들은 적극 찬성하며 호응해나섰다.

모두가 떨쳐나서 가구들과 생활필수품들을 품들여 마련하였다. 한가지라도 놓칠세라 따져보고 제일 좋은것을 갖추어주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합쳐갔다.

사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신랑, 신부의 첫날옷은 물론 살림집을 번듯하게 꾸려주기 위해 마음쓰는 지배인의 뒤를 따라 모든 과, 직장일군들이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그런 지극한 마음과 축복속에 처녀로동자는 뜻

깊은 결혼식상을 받게 되었다.

종업원들을 위하는 이곳 일군들의 미담은 이뿐이 아니다.

젊은 어머니때문에 마음쓰는 한 종업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병치료에 좋은 보약들과 식품들을 여러 차례 마련해주어 병을 털고 일어나게 하였다는 생산과의 한 일군의 이야기도 있고 뜻하지 않은 일로 다친 종업원에게 정성을 기울여 그의 가족을 울린 남자양말직장 일군들과 말은 일에 애착을 가지지 못하는 한 종업원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이끌어줌으로써 혁신자로 되게 한 여자양말직장 일군들의 감동깊은 소행도 있다.

자기보다 종업원들을 먼저 생각하며 뛰는 일군들의 진정에 고무된 종업원들속에서는 동지들을 위하는 미담들이 수없이 꽃피었다.

공장에서는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직장별, 작업반별사회주의중산경쟁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데 이는 집단적경쟁열풍으로 이어지고있다.

어느 직장, 어느 작업반이나 할것없이 앞선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을 도와주고 뒤떨어진 사람은 앞선 사람의 모범을 본받아 모두가 혁신자로 되고있다. 이와 함께 공장의 종업원들은 같이 일하는 성원이 생활상애로가 제기되면 모두가 말아안고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있으며 명절이나 생일이면 그의 가정을 찾아 고무해주고있다.



김명숙은 공장종업원들의 사랑속에 혁신자로 성장하였다. (오른쪽에서 두번째)

공장의 일군인 한성남은 《우리 공장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것과 함께 일터의 면모를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꾸려놓은것을 비롯하여 최근에 이룩한 많은 성과는 바로 종업원모두의 가슴속에 간직된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이 가져온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고상한 미덕과 미풍은 앞으로도 맡은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게 할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서로의 마음을 합쳐 생산장성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의상미술분야의 실력가

지난해 성황리에 진행된 여성옷전시회-2022에서 참관자들과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끈 한 의상도안가가 있다.

그는 전시회에 170여점의 의상도안을 창안하고 출품하여 높이 평가된 평양미술대학 산업미술학부 의상미술강좌 강좌 부교수 김옥경이다.

현대적미감이 나는 세련된 형태, 조선여성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설계된 그의 창안품들을 두고 많은 참관자들은 예술작품을 보는것같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어떻게 되어 그는 교육사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새롭고 개성있는 많은 의상도안들을 창작

할수 있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미술가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미술에 대한 취미를 붙인 그는 평양미술대학에서 의상미술을 전공하면서부터 점차 남다른 창작적재능을 보여주었다. 대학생시절에 그는 기발한 착상으로 여러점의 조선옷도안을 창

안하여 국가미술전람회들에 입선시켜 앞날이 기대되는 의상도안가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

대학교단에 서서도 그는 의상도안창작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현실에서 새 의상도안들을 무르익혔으며 일단 창작에 몰두하면 낮과 밤을 잇고 정열을 쏟아부었다. 특히 그는 의상도안에 시대와 사회상, 민족의 고유한 정서, 대상의 성격과 아름다움을 독특하면서 세련되게 반영하기 위해 애썼다.

의상미술의 높은 경지를 향해 그는 더욱 जु달음쳤다. 그 나날 퇴근길에 어떤 남성의 특이한 육체적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집까지 따라갔다가 오해를 받은적도 있었고 옷차림에 관한 사람들의 기호를 조사하던 과정에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던 청춘남녀에게 무리하다고 할 정도로 장시간동안 질문을 들이대었던 사실도 있었다.

한편 그는 풍부한 지식과 상상력을 소유하기 위해 전공은 물론 각이한 분야들에 대한 연구도 심화시켰으며 의상도안분야의 발전추세도 깊이있게 고찰하였다.

하기에 그가 창작한 의상도안들은 개성이 뚜렷하고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연령별, 직업별, 육체적특성이 살아날수 있었다.

현실에 도입된 교종별에 따르는 학생교복도안,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스키교원복도안을 비롯하여 그가 창안한 700여점의 의상도안들은 국가산업미술전시회와 전국조선옷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많은 의상도안들에 상장이 수



학생들의 작품창작을 지도하고 있다.



김옥경과 그에게서 배운 학생들이 창작한 의상도안들의 일부

여되었다.

그는 학생들도 재능있는 의상도안가들로 키우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바치였다.

그는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에 품을 넣는것과 함께 학생들을 작품창작사업에 적극 인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중앙동물원관리공복장도안을 비롯하여 수십명의 학생들이 창작한 많은 의상도안들이 여러 차례의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제품으로 실현되었다.

뿐만아니라 의상미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에

도대하여 집필한 《의상미술창작》, 《민족의 자랑 조선옷》, 《조선옷도안과 설계》를 비롯한 교과서들과 참고서들도 학생들의 교육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그는 자신과 제자들이 도안한 옷들을 입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한다.

공훈예술가이며 부교수인 김옥경은 2022년 10대최우수교원으로 선정되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최철경



조선치마저고리에 대한 설명을 한다.

웃음을 주는 사람들

평양교예극장에서 국립교예단의 종합교예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그중에서도 희극교예작품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모자와 같은 간단한 소도구를 가지고 여러가지 우습강스러운 재주동작들을 펼쳐보이는 《모자재주》 등 저도모르게 웃음을 자아내는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그들의 기지있고 해학적인 연기를 보며 관중들은 웃음을 감추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국립교예단을 찾았다.

국립교예단은 수많은 교예작품들을 내놓았으며 여러 국제교예축전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관록있는 창조집단이다.

교예단에서는 창립초시기부터 희극교예창작을 시작하여 지난 기간 《의자빼앗기》, 《공재주》, 《줄다리우에서》, 《접시재주》, 《륜재주》와 같이 사람들에게 웃음과 랑만을 주는 많은 희극교예작품들을 창작하여 무대를 보다 이채롭게 하였다.

우리가 훈련장에 들어서니 배우들이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동작을 더욱 세련시키기 위해 땀을 흘리며 반복동작을 수행하는 배우들과 그들의 형상을 지도하는 훈련지도원...

웃음을 자아내는 희극교예작품창작은 난도높은 교예동작을 배합하여야 하므로 그 창작과정

은 결코 쉽지 않다.

창작가, 배우들은 심리학도서를 탐독하고 이미전에 창작한 작품들도 보면서 관중들에게 보다 해학적이며 랑만을 줄수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였다.

또한 우연한 기회에 맞닥든 재미있는 생활소재들도 군중속에서 찾아내어 작품창작에 리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부단히 생활속에서 웃음을 자아낼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마치 고고학자가 유적을 발굴하듯 하나하나 찾아내었다.

소재를 잡은 다음에는 동작들을 숙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어떤 때에는 길을 오가면서 도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동작을 하여 지나가던 사람들을 아연케 했다고 한다.

배우 윤정철은 《사람들을 웃기는것이 울리는것보다 곱절 더 힘들다. 형상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나자신이 안타까운 때도 많았다.》라고 솔직한 심정

을 말하였다.

훈련지도원 허영은 말하였다. 《웃음은 생활의 그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근면한 로동생활과 문화생활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교훈적인 생활을 찾아내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제령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희극교예작품들의 일부



인기를 끄는 관상식물상점

- 중앙식물원에 꾸러진 관상식물상점에서 -



요즘 새로 꾸러진 중앙식물원 관상식물상점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이 상점의 부지면적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여기에는 갖가지 수종의 나무들과 수십종에 수만포기의 화초들이 있는가 하면 기이한 바위들로 장식을 한 못과 함께 화분형식의 조각품을 띄이고있는 우물 등도 조화롭게 꾸러져있어 마치 자연환경속에 있는듯한 감을 준다.

특색있는것은 상점안이 잎관상식물, 꽃관

상식물, 열매관상식물, 분재식물, 선인장 및 살질식물구역으로 나누어져있어 찾아오는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진렬된 화분도 크기와 형태 등이 다양하고 우아하여 이곳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를 더 끌게 하고있다.

중앙식물원을 돌아보며 자기의 정서와 기호에 맞는 관상식물들을 선정한 많은 사람들이 이곳 상점에서 화초와 함께 화분들도 구입해간다고 한다.

긴 아지를 쪽쪽 내뺐은 싱싱한 소철이며

금줄무늬천세란 등이 무성한 잎관상식물구역도 그러하지만 장미, 사철베고니아, 씨클라멘 등의 화초들과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채로운 품종의 화초들이 자라는 꽃관상식물구역에는 늘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특히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의 장미꽃들이 꽃잎을 흔들고 국화, 나리꽃, 제라니움을 비롯한 크고 작은 꽃들이 피어나 한쪽의 아름다운 경치를 이룬 꽃관상식물구역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듯싶다.

사람들의 인기를 제일 끄는 구역은 열매관상식물구역과 분재식물구역이다.



열매 관상식물구역의 화분용사과나무와 포도나무, 복숭아나무 등에는 크고 탐스러운 열매들이 열려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는가 하면 조형예술적으로 잘 가공하여 옛 나무의 모양을 이룬 소나무분재와 단풍나무 분재를 비롯한 크고작은 분재들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고있다.

상점일군인 김향미의 말에 의하면 열매 관상식물과 분재식물에 대한 손님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져 미처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하여 상점에서는 열매 관상식물들과 분재 식물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 한편 새로운 품종의 화초들을 조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시키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또한 그들은 화초판매와 함께 손님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장애 자안 마사

중구역병원 회복치료과 안마사 고정의

지난 6월 2일 평양시 중구역 병원으로 의사, 간호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들어서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이 병원의 회복 치료과에서 안마사로 일하게 된 시력장애자 고정의였다. 그날 병원에서 의사복을 입는것을 거들어주는 안해에게 그는 《나의 꿈이 실현되었소.》라고 귀속말로 말하였다.

7살때 고정의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눈을 다치였다.

이것은 꿈많은 어린 소년에게 있어서 사형선고나 같았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무들이 부러웠고 그럴수록 장차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랴 하는 위구심이 어린 마음에도 커만 갔다.

그러던 어느날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찾아와 그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비록 앞을 보지 못해도 마음만 굳게 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면서 고정의를 조선장애자직업기술학교로 떠밀어주었다.

조선장애자직업기술학교에 입학한 후 고정의의 성장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고정에게서 의학에 대한 남다른 취미를 발견한 교직원들은 의학기초지식과 함께 안마기술도 배워주었다.

이 나날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유능한 안마사가 되려는 소중한 꿈이 자리잡게 되었다.



고정이는 안해와 함께 퇴근길에 올랐다.

에도 만성간질환을 완치시킬수 있는 안마치료방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다.

사람들이 능란한 안마술에 탄복을 금치 못해할 때 그는 《땅타발을 모르는 실농군에게도 아기는 씨앗과 버리는 씨앗이 따로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온 나라 인민을 한품에 안아 따듯이 보살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과 수많은 사람들의 정다운 손길에 떠받들려 나는 재능의 싹을 한껏 꽃피울수 있었다.》라고 진정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올해 34살인 고정의는 부모 처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 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리철

교직원들과 부모의 방조속에 그의 안마실기능력은 날이 감에 따라 높아졌다.

학교를 졸업한 후 조선맹인협회 회원이 된 그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안마 기술도 더욱 세련시켰다. 10여 년간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고정의는 마침내 안마사자격증과 대학졸업증을 받게 되었다.

지난 기간 조선로맹경제문화교류사에서 안마사로 일하면서 경추증과 요추질환질병 등 신경계통질병들을 앓고있던 수많은 환자들을 완치시킨 고정의는 보건부문의 실력평가를 받고 올해 6월부터 전문의료기관에서 본격적인 치료사업을 하게 되었다.

현재 고정의는 척추질병외



고정이는 현재 중구역 경루동 7인민반에서 살고있다.



꿀벌 마리수를 늘여나간다



몇해전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는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기후변화에 의한 기온상승 등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꿀벌마리수가 줄어들어 인류의 생존에 절실한 일련의 작물들이 엄청난 위협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꿀벌은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좋은 꿀을 주고있을뿐 아니라 식물의 꽃가루수정을 통하여 농작물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있다.

농업생산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으며 환경보호를 중요

한 국가정책으로,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있는 조국에서는 양봉업이 장려되고있다.

평양시양봉가협회에는 꿀벌을 전문으로 치는 사업소들과 애호가들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협회위원장인 리번길이 소장으로 사업하는 꿀벌사업소는 앞선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이곳 사업소의 일꾼들과 관리공들은 꿀벌의 습성에 대한 경험적이며 전통적인 지식뿐 아니라 꿀벌치기에 유리한 장소는 물론 사양관리방법에도 통하고있다. 특히 그들은 평

양시는 물론 나라의 모든 지역의 밀원지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시기별로 꿀벌치기를 진행하고있다.

그 모든것은 리번길소장의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40여년간 수도 평양에서는 물론 황해남도의 연안군, 자강도의 오가산, 북방의 함경북도 연사군 등 나라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꿀벌치기를 해온 리번길소장의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은 관리공들의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무슨 일이나 끝장을 볼 때 까지 파고드는 성미인 소장은 지난 기간 새로운 꿀벌치기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많은 사색과 탐구를 거듭 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합리적인 꿀벌사양관리방법들을 적지 않게 내놓았고 여러가지 꿀벌질병치료약도 개발도입하였다. 또한 선진적인 사양관리기구와 덧통 사양관리방법을 받아들여 자기 단위는 물론 협회안의 사업소

들과 애호가들에게 널리 보급하였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원칙적인 요구는 이 사업소에서 훌륭한 꿀벌관리공들이 자라나게 하고있다.

이곳 사업소의 관리공들은 세계적인 꿀벌치기발전추세를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사양관리 방법들을 창안도입하여 꿀벌의 마리수를 늘여나가고있다.

지금 이들이 생산한 아카시아꽃꿀과 피나무꽃꿀 등은 당도함량이 높으면서도 향기로와 호평을 받고있다.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 나라의 재부를 늘여나가는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 조국땅에서는 꿀벌의 마리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임철병

우리 양봉가들의 최대의 금지는 꿀벌의 산물을 얻는데도 있지만 보다는 나라의 생태환경보호와 산림보호증식에 이바지하고있는데 있습니다.

평양시양봉가협회 위원장 리번길



사향주사약을 개발한 의학자

뇌출혈을 비롯한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신체에 마비가 오게 되면 몇달 혹은 몇년간을 꾸준히 치료하여야 한다. 그것도 100% 완쾌된다는 담보는 없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조국의 남포시 강서구역병원에서는 최근년간에 개발된 사향주사약으로 마비성질환환자들을 단기간내에 치료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 병원의 의사 김은애는 자기의 치료정형에 대하여 약개발자인 보통강고려약공장 연구사 배기철에게 이렇게 전하였다.

이 약을 쓴 후 뇌출혈로 불구가 되었던 한 로인이 5일만에 일어났고 8일만에는 완전히 마비가 풀렸으며 하반신마비가 왔던 9살 난 어린이의 치료효과도 날이 갈수록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환자치료에서 사향주사약의 효과성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다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배기

철은 고려의학자가 된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곤 한다.

그가 고려의학자가 되게 된 데는 어느한 도종합병원 부원장으로 있던 외삼촌의 영향이 컸었다.

중학교(당시)졸업을 앞둔 어느날 그는 집에 들렀던 외삼촌에게 자기도 아버지처럼 기계공학기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의 말을 들은 외삼촌은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희 어머니랑 내가 일본에서 살 때 우리같은 조선사람들은 돈이 없어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꼭 의학공부를 하여 조선사람들을 마음껏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싶었다. 허나 일본에서는 그것이 한갓 꿈에 지나지 않았지.》

그러면서 외삼촌은 조국의 품에 안겨 의학공부를 하였다

고 하면서 일본에서 약 한첩 못써보고 숨진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한을 풀자면 기철이 꼭 우리민족의 자랑인 고려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학자가 되길 바란다고 절절히 당부하였다.

이렇게 되어 그는 평양의학대학 약학부에 입학하였다.

그날 기철의 아버지(조국의 품에 안긴 후 평양기계대학을 졸업하고 평양배아령공장 기술과에서 일하고있었다.)는 아들에게 《너를 나처럼 기계공학기사로 키우고싶었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외삼촌의 말대로 민족의 넓이 깃든 고려의학을 전공하길 잘한것같다. 나는 너의 선택을 지지한다.》라고 하며 기뻐하였다.

몇년후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연구원 연구사로 배치받은 그는 고려치료방법을 개선하고 천연재료에 기초한 효능높은 약품개발에 정열을 쏟아부었다.

그 과정에 그는 림상실천에서 신의학으로는 완치률이 적은 순환기질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들에 효과적인 고려약들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적중한 고려치료방법들도 련이어 내놓을수 있었다. 그의 연구성과는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당장 박사론문을 쓸것을 권고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방대한 문헌자료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귀한 약재로 리용하여온 사향에 대하여 주시하게 되었다. 당시 국내에는 오래전에 사향주사약이 개발

되어나왔지만 천연사향에 비해서 주사약의 효능은 그리 높지 못했다.

이 실패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며 그는 자신이 차그마한 성과에 도취되어 벌써 명예부터 생각하며 들떠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는 지체없이 이 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는 그 원인만 알게 된다면 능히 특효약을 만들수 있는 실마리가 풀릴것이라는 확신을 안고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그는 량강도를 기본으로 하여 함경북도, 함경남도 등의 험한 산밭을 오르내리며 여러가지 약초들을 채취하였으며 사향과 약초들의 효능을 대비분석해보기도 하였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0여년... 당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겪고있던 시기여서 애로와 난관은 그의 가정에도 조용히 들이닥쳤고 그의 연구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도서관으로, 출장길로 중단함이 없이 이어졌다.

낮에 밤을 이어가며 실험에 몰두하는 그는 언제 달이 가고 해가 바뀌는지 몰랐다.

그렇게 사향주사약연구사업이 림상실험 마지막단계에 이르렀던 어느날 그는 혹시 뇌혈전이나 뇌출혈이 자신에게서 발병할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여 그는 만약 그렇게 되면 자기를 놓고 림상실험을 하여 줄것을 연구조성원들에게 부탁하였다.

그의 예언대로 배기철은 얼마후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으며 급속히 한쪽 팔과 다리에 마비

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연구조성원들은 배기철의 당부대로 사향주사약을 4시간간격으로 2대씩 그에게 주사하였다. 주사를 두번 맞고나니 배기철의 얼굴이 정상사람처럼 되었으며 세번 맞은 다음에는 팔을 들수 있게 되었다.

그런 상태에서 김만유병원에 입원한 배기철은 이곳 의료일군들에게도 자기에겐 다른 치료를 하지 말고 오직 자기가 만든 사향주사만 계속 주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하여 3일만에 그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수십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개발하고 자신의 육체를 바쳐 진행한 림상실험을 통하여 그 효과성이 검증된 사향주사약은 특허를 받았으며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성공에 자만을 모르는 배기철은 그후 보통강고려약공장 연구사로 있으면서 연구사업을 보다 심화시켜나갔으며 사향주사약의 효능을 보다 높이는것과 함께 10여가지의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련이어 개발하여 많은 전시



배기철

회, 전람회, 과학기술축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지금 그는 보다 드높은 탐구정신과 열정을 안고 북나무혹버섯으로 새로운 고려약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즐기치게 별려나가고있다.

림상치료과정에 효과성이 나날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는 이 약의 개발을 안해와 아들, 딸 모두가 조수가 되어 돕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로광남



안해와 함께 생산된 주사약에 대한 검정을 하고있는 배기철

상 식

질병을 알려주는 몇가지 증상들

연구자료에 의하면 아침에 깨어났거나 속이 비었을 때 입안이 씹쓸한것은 대체로 간이나 담낭, 위의 염증과 많이 련관되어있다고 한다.

입안에서 단맛을 느낄 때에는 주로 비장과 위, 간에서 변화가 있거나 소화기능이 나빠진것과 관련된다.

일부 소화기질병과 내분비질병 그리고 결핵에 걸렸을 때에는 입안이 습습하다고 한다. 만성 및 급성위염이나 위산과다증일 때에는 입안이 시큼하다.

입안이 짹짹할 때에는 대체로 만성인후염, 입안궤양, 이몸출혈, 만성콩팥염이나 콩팥기능부전이 있는 경우일수 있다.

입안에서 매운맛을 느낄 때에는 폐염, 기관지염, 고혈압증상 등이 있는 경우일수 있다.

* * *



고향소식

고향땅을 다시 밟아본다면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해가는 취재길에서였다.

수도 평양의 대동강을 가로지른 충성의 다리입구에서 락랑구역쪽을 바라보니 웅장한 통일거리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들었다.

대동강기슭을 따라 구

모있게 들어앉은 고층살림집들과 특색있는 편의봉사시설들, 공공건물들.

수천년전 고조선유민들이 세운 락랑국이 차지했던 지역에 오늘은 락랑박물관이 서있어 세월의 흐름속에 변천되는 이곳의 모습을 지켜보고있는듯 싶었다.

10년전 캐나다에서 살고있는 리근영동포가 고향땅인 이곳을 찾았었다.

그때 그는 자기 눈을 의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처마낮은 집들이 옹기종기 널려져있던 이곳이 내 등지고 떠났던 락랑땅이란 말인가.

정말 천지개벽했구나.》

그러면서 동포는 거리의 살림집구획들이 비반복적이며 규모가 크게 형성되어있다고 탄복을 금치 못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늘 락랑구역은 또 다른 모습을 펼쳐보이고있었다.

여러 구획들마다에 높아가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고층살림집들이 건설되고 공장들이 새로 일떠서 거리의 웅장함을 더해주고있었다.

특히 인민생활향상, 인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장들이 개건되고 새로 일떠섰다. 락랑감자가공공장, 락랑봉화피복공장, 평양대성김가공

공장, 평양정향건재공장, 대동강주사기공장, 평양향료공장...

지금 이 공장들에서는 생산과정현대화와 새 제품개발, 원료, 자재의 국산화, 질제고 등에서 뚜렷한 전진을 이룩하고있었다.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도 초기에는 생산건물과 설비가 미약했지만 내외부를 개건하고 설비들을 현대화하여 여러가지 질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재자원화를 실현하여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하고 국가에도 많은 리익을 주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평양시약공장에서는 방대한 개건공사와 설비현대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생산을 장성시키고있었다.

그 비결에 대해 공장의 일꾼인 이정호는 종업원들 모두가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과학기술을 앞세운 결과라고 하면서 앞으로 공장을 더 잘 꾸리고 생산도 정상화하고 생산능력도 확대해나겠다고 하였다.

정성제약종합공장에서도 수액약품생산이 종전의 10배로 장성하였으며 의약품의 가지수가 많고 효능이 높아 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었다.

이와 함께 구역의 학교와 병원, 편의봉사기지들에서도 자기 발전의 목표를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있었다.

그로 하여 구역은 나날이 자기의 면모를 일신시켜가고있었다. 몇해전 미국에서 온 최금영동포는 락랑구역을 돌아보고 약동하는 조국의 모습을 보았다고, 10년은 더 젊어진것같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류경금빛산업중심

8만 7천여㎡의 연건축면적에 상업, 급양, 호텔, 사무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봉사기지인 류경금빛산업중심이 주체112(2023)년 7월 27일 개업하였다.

아마도 리근영동포도 다시금 고향땅을 밟아본다면 변모된 이 고장의 모습에서 또 류다른 충동을 받아안게 될것이라는 생각

이 우리의 머리에 갈마들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정성제약종합공장

30여년의 연혁을 가진 의약품생산기지이다.

생산환경의 무균화, 무진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하고 첨단분석설비들에 의한 의약품검정도 과학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락랑감자가공공장

주체101(2012)년 3월 락랑감자가공공장이 개건되었다.

모든 공정들이 현대화된 공장은 연간 수백t의 감자가공품과 다량의 남새가공품을 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락랑박물관

주체111(2022)년 새로 일떠선 락랑박물관에는 세계5대문명의 발상지의 하나인 평양에서 고조선문화를 련면히 계승하여 창조된 락랑문화에 대하여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박물관에는 민속놀이장도 꾸려져있다.

금진약돌 안마치료등받이

면적외선 - 음이온 - 안마 - 전자기마당효과

보건성 의료기구연구소 주옥의료품생산소에서 개발한 가정용치료기들이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여러가지 난치성질병에 대한 예방치료효과가 좋은 치료기들은 금진약돌을 리용하여 만든것이다.

이 치료기들은 주체106(2017)년에 진행된 평양국제건강 및 의료기구부문 과학기술전시회를 비롯한 여러 전시회들에서 기술상을 수여받았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권증서를 받았다.



**피, 림파순환을 강화해
주요 신진대사를 개선하여
허리아픔을 없애주며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게 합니다.**



민족의 향기



비빔국수를 맛봅시다

얼마전 우리는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평양대 동강수산물식당에서 특색있는 비빔국수를 맛보았습니다.

쫄깃한 메밀국수와 고소하면서도 새콤한 철갑상어회가 조화된 비빔국수를 맛보게 되는 쾌감은 참으로 비길데 없었습니다.

(이 국수를 우리 동포들과 함께 맛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오는것이였습니다. 하여 우리는 이번호에 비빔국수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국수는 오늘날 그 종류

와 모양, 맛이 특색있게 발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알고있다싶이 국수는 밀이나 강냉이, 메밀과 같은 낱알가루를 물에 반죽하여 분틀에 눌러 긴 오리로 가늘게 만들어 물에 삶아낸 후 국물에 말아 꾸미를 넣고 먹는 음식입니다.

랭면이나 쟁반국수는 흔히 국수에 김치국물이나 육수를 붓고 먹습니다. 그러나 국수에 물을 따로 붓지 않고 꾸미와 양념을 넣어 비벼먹는 비빔국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개하려고 하는 비빔국수는 비벼먹는 꾸미에 따라 고기비빔국수, 된장비빔국수,

남새비빔국수, 물고기회비빔국수(일명 물고기회국수) 등으로 가를수 있습니다.

비빔국수에 대하여 《동국세시기》에는 《메밀국수에 밤, 소고기, 돼지고기, 참기름, 간장 등을 넣어 섞은것을 <골동면>이라고 한다.》고 적여있고 《시의전서》에 《소고기를 다져서 볶고 록두나물과 미나리를 무친 다음 국수우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고추가루, 깨소금을 뿌린다.》고 한것을 보면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여러가지 꾸미를 놓아 다채롭게 비빔국수를 만들어 먹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서는 항암작용을 할뿐 아니라 신경계통과 대뇌활동, 면역능력을 높이고 소화방지, 해열, 해독작용과 탈모증, 수명연장에 특효가 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건강장수식품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철갑상어를 비빔국수의 꾸미로 리용하고있습니다.

철갑상어는 맛과 영양가치, 약효에 있어서 어떠한 물고기도 따를수 없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면 요리사 김금영을 통해 철갑상어회비빔국수 만드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펄펄 뛰는 철갑상어의 가죽을 벗기고 살고기를 편냅니다. 이것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5~7% 되는 식초에 재웁니다. 8시간정도 지난 후 물을 짜워 고추가루, 사탕가루, 소금, 파, 마늘, 참기름, 참깨 등을 넣고 회를 칩니다.

국수가공방법은 랭면을 만들 때와 같습니다. 말아놓은 면(국수사리)우에 썬 동치미와 오이무침, 철갑상어회와 실닭알을 차례로 올려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찾았던 소감을 글로 남기고있다.

양념장은 참기름을 일정한 온도에서 가열한 후 사탕가루, 고추가루, 다진마늘, 썬파, 참깨, 소금, 끓여서 식힌 물을 두고 까룩하게 만들어 국수주위에 붓습니다. 비빔국수에 반풍기정도의 닭고기국물(육수)도 함께 식탁에 냅니다.

물고기회를 한점 들어 맛을 본 다음 양념과 꾸미, 국수가 골고루 섞이도록 자주 버무려서 들어야 비빔국수의 진맛을 느낄수 있습니다.

비빔국수와 함께 나온 고기국물은 국수를 먹으면서 조금씩 목추임을 하는 식으로 듭니다.

지금 이 식당에서는 철갑상어회비빔국수를 즐겨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 미처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동포여러분도 앞으로 조국에 오시면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서 특색있는 철갑상어회비빔국수를 꼭 맛보십시오. 그러면 랭면과는 전혀 다른 민족음식의 향취를 맛보게 될것입니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리철



조국은 우리 삶의 영원한 품입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허종만

(전호에서 계속)

영원히 안겨살 아버지의 품

세월을 넘어 흐르는 정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일동포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각별하고 다심한 사랑과 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뜨거워만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총련은 사회주의조국의 한 부분이며 재일동포들은 어머니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진형제, 한 집안식솔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공화국창건절을 맞는 9월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경모심이 더더욱 붉게 타는 그리움의 계절이고 원수님만을 끝까지 따를 철석의 신념이 가슴속에 용암처럼 뜨겁게 끓어차는 충효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인 주체103(2014)년 9월 저는 공화국창건 6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으로 조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저희들은 먼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인사를 드리었습니다.

그때 저는 금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허종만이 왔다고 반겨맞아주시는것만 같아 한껏 쌓였던 그리움의 동을 터치고야말았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그리움이 없었지만 조국에 대한 저의 그리움은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만졌으니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재일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신 정이 너무도 뜨겁고 깊었기때문이었습니다.

태양의 은혜로움과도 같았던 그 정을 잃은것만

같아 텅 비었던 우리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사랑을 채워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정깊고 열렬한것인가를 저는 조국방문의 나날에 가슴뜨겁게 체험하였습니다.

저의 조국체류일정은 중앙병원에서 종합검진과 치료를 받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기 수십차례나 조국을 방문하였지만 이런 류다른 일정은 처음이어서 영문을 몰라하는 저에게 조국의 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의장동지가 나이도 많고 눈도 좋지 못하는데 먼저 검진과 치료를 받도록 몸소 일정을 잡아주시었다고 말하는것이었습니다.

로환무책이라고 눈이 좋지 않아 고생하면서도 어쩔수 없는 일로 여겨왔는데 이렇듯 다심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니 원수님의 그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저는 뜨거운 눈물만 흘리었습니다.

정말이지 그해의 조국방문의 나날은 충격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조국의 향취가 한껏 어린 성대한 연회도 마련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은 재일동포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그대로였습니다.

꿈같은 조국방문의 나날을 마치고 조국을 떠나던 그날을 저는 눈에 흠이 들어가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30여일간의 조국체류일정을 마치고 숙소에서 출발준비를 하고있던 저는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친서를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하고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조국체류기간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다 누린 저희들이 고마움의 인사도 미처 올리지 못하였는데 오히려 친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이 가득

넘치는 친서를 보내주시었으니 저는 너무도 놀랍고 꿈만같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국에서 마지막밤을 보내던 행복의 그 시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슬하를 떠나는 자식들에 대한 걱정으로 온밤 잠 못이루시며 은정 넘치는 사랑의 친서를 쓰신줄을 제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걱정으로 떨리는 두손을 가까스로 억제하며 봉투를 개봉하니 너무도 낮익은 그이의 존귀하신 필체가 순간에 안겨들어 저는 친서를 읽을 생각도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었습니다.

다소 마음을 진정하기는 하였으나 《존경하는 허종만동지!》라는 첫 문구에 저는 또다시 오열을 터치고야말았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께서는 허종만의장과 총련을 굳게 믿는다는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실 때 저는 거대한 산악을 통채로 받아안은듯 가슴이 벅차올라 끓어오르는 걱정을 누를길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고 뜨거운 그 사랑은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시던 사랑그대로였습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조선혁명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과 함께 총련강화발전의 위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총련 제25차 전체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천강령도 밝혀주시었습니다.

새해 첫날과 기념일들 그리고 저의 생일때마다 축전과 축하문을 꼭꼭 보내주시어 우리들의 앞날을 뜨겁게 축복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사의 각오로 헤쳐가신 불멸의 자욱을 따라 제가 조국의 동부산악 2 500리의 행군길에 올랐던 그때처럼 귀중한 우리 총련을 위하여, 사랑하는 재일동포들을 위하여 더욱 용진하라고 힘과 용기를 주신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이역에 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워주시고 해외동포권익옹호법까지 제정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진정 어머니의 정은 한가정의 트랙을 넘지 못하지만 위대한 우리 아버지의 정은 이역만리에까지 따사롭게 비쳐들고있습니다.

사랑과 정에는 보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총련의 력사는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따듯이 품어안아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인 동시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깨끗한 량심과 의리를 다 바쳐온 우리 재일동포들의 애국충정의 력사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그 길에서 빛나는 영생과 값높은 삶을 받아안은것입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충신들의 전렬에 내세워주신 한덕수동지, 조국에서 김정일훈장이 제정되었을 때 그 첫 수훈자의 영예를 지닌 서만술동지, 신미리에국렬사릉에 안치되어있는 리진규, 문동건, 박정현, 남시우, 박희덕동지들을 비롯한 수많은 재일조선인애국자들의 영광넘친 삶은 조국을 따르는 길에 영원한 행복과 미래가 있음을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지만 공화국만을 영원한 삶의 품으로 믿고 따르려는 우리의 신념과 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으며 재일조선인운동사는 공화국의 발전행로를 따라 앞으로 영원히 즐기차게 이어질것입니다.

글을 마감하며 저는 공화국의 존엄과 국위를 세계의 최절정에 올려세우시여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강국공민의 영예와 존엄,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새겨주신 만고절세의 위인,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목청껏 소리높이 웨칩니다.

우리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며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원수님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주체112(2023)년 9월
일본 도쿄에서

조선봉건왕조 (2)

조선봉건왕조후반기는 임진조국전쟁이후시기인 17세기부터 19세기 60년대이전시기를 포괄한다.

17세기에 들어와 조선인민은 1627년과 1636년 두차례에 걸친 외적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봉건통치배들의 항전의지가 확고하지 못하고 군사적준비가 불충분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들은 침략자들을 조국땅에서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냈다.

이 시기 금속화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것을 비롯하여 상품화폐관계가 발전하고 광업, 수공업분야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발전하였다.

17세기이후부터 우리 나라에는 신분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워진 로동력이 적지 않게 형성되었고 상품화폐관계의 장성과 함께 자본주의적생산에 필요한 많은 량의 화폐재산을 축적한 봉건량반지주들과 상인계층이 출현하여 자본주의적관계발생의 력사적전제가 마련되었다. 그러한 속에 18세기중엽에 광업부문에 잡채의 출현과 함께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하였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금속가공업과 인삼재배업과 같은 여러 부문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발전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이르러 봉건지배계급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도 힘차게 벌어졌는데 평안도농민전쟁(1811년-1812년), 진주농민폭동(1862년)은 봉건통치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대표적인 투쟁이었다.

이 시기에 와서 점차 심화되던 봉건제도의 문란과 위기는 19세기초부터 60년간 계속된 통치배들의 세도정치와 카톨릭교의 침투 등으로 일층 심각화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변화와 봉건제도의 위기를 반영하여 17세기-19세기에 새로운 사상조류인 실학사상이 발생발전하였다.

실학의 발생은 17세기이후 우리 민족의 사상문화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귀중한 성과였다. 실학자들은 날로 심화되는 봉건통치의 위기를 타개

하고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리공담이 아니라 쓸모있는 학문을 연구해야 한다는 립장으로부터 통치제도, 신분제도, 군사제도를 비롯한 제반 제도들과 경제발전과 관련한 개혁안들을 제기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말과 글에 대한 연구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실학사상과 이들의 사회정치개혁안은 계급적 및 현실적제한성으로 하여 실현될수 없었지만 당시의 력사적조건에서는 진보적인것이었다.

이 시기 또한 국문소설이 발전하여 《홍부전》, 《춘향전》을 비롯한 우수한 작품들이 구전설화에 토대하여 더욱 다듬어지고 완성되었고 새로운 축성리론과 건축기술에 의거하여 18세기말에 수원성이 특색있게 건설된것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슬기를 보여주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19세기 60년대이후 조선봉건왕조의 력사는 근대사에 속한다.

19세기중엽은 아직 미약하지만 자본주의적관계가 점차 봉건제도를 무너뜨릴 새로운 힘으로 나타나고있던 시기였으며 유미자본주의침략자들이 본격적으로 쳐들어오던 시기였다.

우리 인민은 1866년 미국침략선 《서먼》호를 격침시킴으로써 근대사의 첫페이지를 빛나게 장식하였으며 같은 해에 있는 프랑스함대의 침략과 1871년에 있는 미국함대의 침공을 성과적으로 물리쳤다.

조선인민의 반침략, 반봉건투쟁은 일본침략자들이 1875년 《운양》호사건을 도발한 다음 1876년에 굴욕적인 《강화도조약》이 강압체결되고 나라가 점차 반식민지로 굴러떨어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1882년에 대규모적인 군인폭동(임오군인폭동)이, 1884년에는 나라의 근대화를 지향한 부르조아개혁(갑신정변)이, 1894년에는 대규모의 농민전쟁(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났다. 이 농민전쟁의 압력에 의하여 봉건정부의 혁신관료들은 1894년에 부르조아개혁(갑오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일제침략자들의 방해책동으로 실패하였다.

일제는 청일전쟁, 로일전쟁을 도발하여 청나라와 짜리로씨야세력을 물리치고 조선을 그들의 독점적식민지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1905년에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봉건왕조의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았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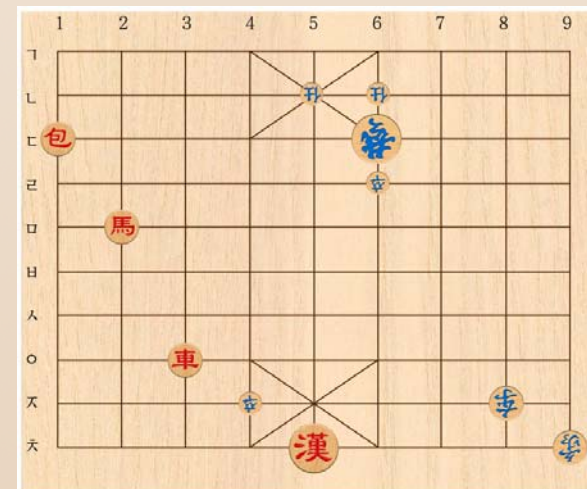
며 《통감부》를 설치함으로써 나라의 모든 실권을 강탈하였다. 그리고 1907년에 《정미7조약》을 날조하여 조선봉건왕조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하였으며 조선군대를 강제해산하였다.

조선인민은 반일의병투쟁, 국채보상운동, 애국문화운동 등 각종 형태의 반침략, 반봉건투쟁을 세차게 일으켰으나 나라와 민족을 일제의 마수로부터 건져내지는 못하였다.

1910년 8월 일제가 그들의 군사적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함으로써 형식상으로 존재하던 조선봉건왕조는 종말을 고하고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차광혁

장기수풀이 (12)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장기격언

추위를 잘 타는 민궁

궁보위에서 기본역할을 하는 량귀사가 죽었을 때 궁성의 허전함과 궁의 외로움을 의미하는 말이다.

흔히 민궁을 시킬 때 속옷까지 벗긴다고도 하는데 이것은 궁성방어에서 량귀사의 중요함을 뜻하는것이다.

장기수풀이 (11)에 대한 답

- ㄹ5포ㄹ5, ㄹ5상ㄹ2, ㄹ2차ㄹ5,
- ㄹ5궁ㄹ6, ㄹ3말ㄹ4, ㄹ6사ㄹ5,
- ㄹ5차ㄹ5, ㄹ6궁ㄹ5, ㄹ4말ㄹ5,
- ㄹ5궁ㄹ6, ㄹ3말ㄹ5, ㄹ6궁ㄹ5,
- ㄹ5말ㄹ3, ㄹ5궁ㄹ6, ㄹ3말ㄹ4, 장훈

참대를 즐겨 그린 류덕장

류덕장(1694년-1774년)은 사시장철 푸른 빛을 잃지 않고 곧게 자라는 참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즐겨 그렸다.

이름있는 량반가문의 출신인 그는 자를 성유, 호는 수운, 가산이라고 하였다.

류덕장이 것처럼 참대를 좋아하고 참대그림을 잘 그린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화풍을 이어받은것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실학사상의 영향밑에 회화분야에서는 인간묘사와 조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실주의적으로 생동하게 묘사하려는 새로운 화풍이 돌고있던 시기에 태어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창작활동을 하였다.

때문에 그가 그린 참대그림은 《사군자》의 참대그림과는 뚜렷이 구별되었다.

당시 문인량반들이 모진 바람에도 끄덕하지 않는 참대의 특징을 소위 저들의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레찬하면서 뒤꼍방에 앉아 제

멋대로 그린 참대그림을 제일인것처럼 뽐내었다면 류덕장의 참대그림은 아름다운 조국의 자연에 깊이 뿌리박고 사시장철 사나운 바람과 눈비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굳세게 자라는 푸르싱싱한 모습을 실감있게 그린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보다 친근감을 주었다.

그는 참대그림에서 볼수 있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정황속에서의 각이한 참대형상을 창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었다.

따라서 그의 그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적조건과 함께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온 후의 정황에 놓인 참대의 다양한 형상들이 묘사되었다.

이것은 참대형상의 도식을 극복하는데서는 물론 참대의 곧고 굳으며 꺾이지 않는 특성을 부각시킬수 있게 하였다.

류덕장은 자기가 그린 여러가지 참대가운데서도 눈속의 참대를 제일 사랑하였다. 그는 별로 잔재간을 부리지 않고 눈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세게 대지에 뿌리를 박고 서있는 참대의 특징을 그렸는데 잎사귀가 내려썰인 눈의 무게에 눌리워 아래로 처진 모양도 실물그대로 생동하게 그리었다.

류덕장은 참대 한가지만을 그리었지만 언제나 보는 사람들의 기분을 새롭게 하여주곤 하였다.

실로 류덕장은 애어린 참대로부터 다 자란 참대에 이르기까지 환경과 계절에 따르는 각양각색의 참대그림을 남기었다.

그중에는 8폭, 6폭으로 된 참대병풍들과 《눈맞은 대》를 비롯하여 수많은 그림들이 있다.

하기에 당시 이름있는 서예가이며 평론가인 추사 김정희는 류덕장이 그린 참대를 가리켜



《눈맞은 대》
116×73.5cm 종이·먹



《대》
37.7×19.7cm 비단·먹

청렴한 부부



고려 의종때 유응규라는 사람이 남경태수로 있었다.

그때는 관리들이 학문을 숭상한다고 하면서 공리공담과 방탕한 놀이로 세월을 보내기가 일쑤였다. 게다가 어떤 관료들은 지방장관으로 부임하면 사육에 눈이 뒤집혀 백성들의 재물을 닥치는대로 빼앗아 재산을 늘구려고 하였다.

이와 반면에 유응규는 청렴하기 그지없었다.

유응규가 처음 태수로 부임했을 때 관속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야단이였다.

한 관속이 돈을 바쳤을 때였다.

《그것은 얼마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까지



백성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 그따위 진상품을 올렸단 말이러냐?! ... 이후에 다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용서없을줄 알아라.》

되게 꾸중을 들은 관속은 돈을 가지고 황급히 물러갔다. 그래서 다음엔 그 누구도 돈을 바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후 이런 일이 또 있었다. 태수의 부인이 젖앳이로 앳고 난 후 입맛이 돌아서지 않았다.

촉기빠른 한 관속이 이런 형편을 알고 꿩 한마리를 구해 태수집하인에게 주면서 자기가 가져왔다 하지 말고 수단껏 해서 잡수시게 하라고 당부하였다.

하인은 그 꿩을 들고 부인한테 들어가 친척을 만나 꿩 한마리를 얻어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오려 하였다.

그러자 부인은 하인을 불러 세우고 꿩을 돌려주라고 준절히 타일렀다. 하는수없이 하인은 자초지종을 말하게 되었다.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네가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씨는 잘 알겠다. 그리고 보내준 사람도 내가 병중에 있다고 녀려해준 그 정성은 더없이 고

맴구나. 그러나 그것을 먹는다고 입맛이 돌아서는것도 아니다. 더우기 내가 잠깐 호강을 한탓으로 지금껏 지켜온 남편의 청렴한 덕을 더럽힐수는 없다. 그러니 어서 그것을 돌려보내거라.》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부인과 하인간에는 이런 말이 오가게 되었다.

《마님, 이것은 무슨 진상품도 아니옵고 어쩌다 많이 생겼다고 갈라준것인데 이웃끼리 음식을 나누어먹는것이 무슨 그리 큰 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태수의 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웃에서 딱하게 생각하고 가져온 음식을 받아 먹어도 그리 흠될것은 없다.》

하는수없이 하인은 꿩을 들고 관속을 찾아가 돌려주었다.

세상에는 사육에 눈이 어두워 신세를 망친 사람도 많거니와 그 안해가 악한 탓으로 신세를 망친 사람 또한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니 유응규의 청렴함은 자신과 함께 부인의 깨끗한 마음씨가 없이는 있을수 없었을것이다.

* * *

요즈음 지식이 많은 화가들이 그린 참대그림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훌륭하다고 높이 찬양하였다.

류덕장이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이처럼 즐겨 그린 수많은 참대그림들중 수십점이 현재 조선

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있으며 그의 이름과 함께 조국의 미술사에 깊이 새겨져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석



15세기 군사지휘관이며 기술자였던 리천

리천은 무관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되려고 하였다. 그는 27살 때와 35살 때에 무과시험에서 합격하여 정식 무관이 되었다. 그는 그후부터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서 명성을 떨치었다.

그가 침략자들의 침공을 쳐물리치는 싸움에 참가하였을 때였다. 그때 앞서 싸움에 나섰던 최윤덕이 많은 병력으로 침략자들의 소굴을 소탕하는 작전을 벌리었으나 적들의 준동을 완전히 분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봉건정부는 평안도절제사로 있던 리천에게 군사를 주어 이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령을 받은 리천은 1437년 원정군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동가강을 지나 침략자들의 소굴인 올라산성을 공격하여 적을 완전히 소탕해버리었다. 이 전투에서 그가 발명한 화약 무기인 화포가 전투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한다.

그의 생애에서 과학과 기술발전에 쌓아올린 공적 또한 크다.

당시 15세기는 생산이 급속히 발전하고 농학, 천문학, 력학, 수학, 음악, 의학, 군사학 등 과학문화분야에서 봉건문화의 일대 개화기를 이룬 시기였다. 이러한 때 그는 출판인쇄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정력을 기울여 1420년에 새 활자를 주조함으로써 당시 서적출판사업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하였다.

이 활자는 구리로 주조되었는

데 1403년에 주조한 활자 《게미자》에 비하여 작으면서도 정교하고 우수하였다. 활자를 1420년의 간지를 붙여 《경자자》라고 불렀는데 큰것과 작은것의 두 종류가 있어 더욱 편리하게 많은 책을 찍어낼수 있었다.

그후 1434년에 그는 《경자자》를 다시 개량하여 20만개나 되는 《갑인자》를 만들었는데 이 활자는 글자체가 더 깨끗하고 단정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9월부터는 《갑인자》로 《동국통감》, 《삼운통고》 등 많은 책을 인쇄하였다.

활자에 대한 리천의 탐구와 창조적노력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갑인자》가 나온 때로부터 2년후인 1436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연활자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자판에 밀(누린 초)을 녹여 붓고 밀이 굳기 전에 활자를 박아서 고정시키던 종래의 방법대

신에 자판에 활자를 세운 다음 그사이에 대나무조각을 끼워 활자를 고정시켜 인쇄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보급하였다. 이것은 근대적인 조판방법의 시원으로 되었다.

이와 같이 리천은 고려의 금속활자를 크게 발전시켜 세계 최초의 연활자와 현대적조판기술의 원형을 창조하였다. 그의 높은 기술과 지식은 천문관측기구를 창안제작하는데서도 높이 발휘되었다. 그는 당시 유명한 기술자들과 함께 1443년 천문관측기구인 혼천의를 제작하였으며 자동물시계를 비롯한 각종 해시계, 천체좌표측정기구인 간의 등 수많은 천문관측기구를 창안제작하는데서도 주동적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리천은 15세기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본사기자

상 식

감홍로

감홍로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전통술들중의 하나이다. 감홍로는 맛과 향기도 좋지만 건강과 장수에 좋은 약효성분들이 많이 가지고있다.

술에는 항암 및 항로화, 해독, 해열작용, 혈압과 콜레스테롤함량을 낮추고 정력이 넘쳐나게 하는 약효성분들이 다량 들어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평양특산이며 명주인 감홍로의 양조기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 *

조선의 단청

천정무늬

천정무늬는 소란반자, 빗반자가 형성되는 조건에 따라 단청무늬장식도 여러가지로 한다.

소란반자무늬는 울대와 개판장식이 하나의 통일상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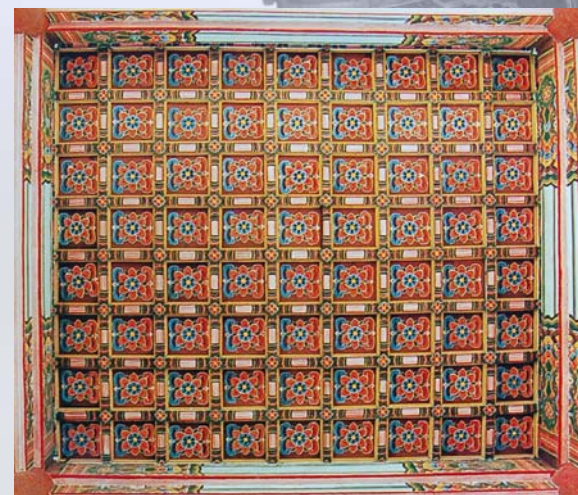
울대는 간단한 록화를 십자로 넣고 중심꽃무늬를 배치하여 장홀림으로 장식하는 경우가 많다.

개판무늬는 기본장식부분으로서 평련화, 파련화, 모란화, 보상화를 비롯하여 쌍학, 쌍봉, 쌍회자무늬 등 다양한 소재로 장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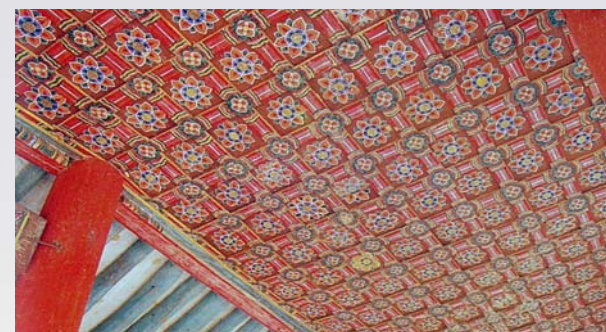
빗반자는 장식면적이 넓어 활용범위가 크다.

빗반자에는 구름무늬외에도 칠보무늬, 길상무늬, 신선도, 주연무악도 등 회화적성격을 띠는 그림들도 그려넣어 장식의 유연성을 보장해준다.

본사기자



구성읍성 남문의 천정소란반자



언무루 1층 천정소란반자



안불사 극락보전 천정소란반자



량천사 대웅전 빗반자 무악도



만년사 대웅전 빗반자 룡그림



구월산은 황해남도 북서부지역에 있는 은률군, 안악군지역에 속해있다.

산은 단풍든 9월의 풍경이 하도 아름다워 9월이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한다.

이밖에도 산은 궁골산, 증산, 아사달산, 삼위산 등으로 불리웠으며 특이한 산악미, 계곡미를 자랑하는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조선의 6대명산의 하나로 손꼽히었다.

구월산은 주봉인 사황봉을 비롯하여 오봉, 주거봉, 삼봉, 아사봉 등 기묘하게 생긴 99개의 크고작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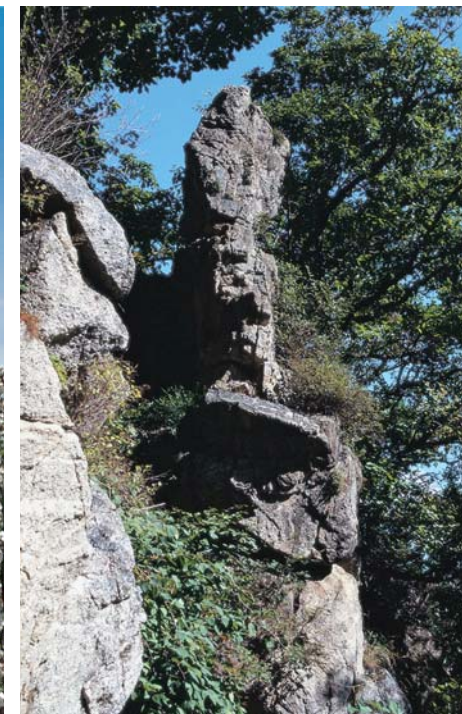
화강암, 흑운모화강암, 각섬

구월산

조선의 6대명산중의 하나
해발높이 954m(사황봉), 면적 110km²



아사봉의 형제바위



부처바위



단군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있는 바위



수리개바위



2단폭포



3단폭포

석 등으로 되어있는 구월산에는 오랜 세월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에 의하여 절리면과 균열면이 깎이면서 기묘한 바위와 절벽, 원추형, 각추형의 봉우리들과

깊은 골짜기들이 있다. 구월산의 산성골, 오봉골, 운계골, 화장골, 원명골을 비롯한 깊은 골짜기들에는 구슬같이 맑은 물이 흘러내려 물안개에

칠색무지개가 령롱한 룡연폭포와 삼형제폭포를 비롯한 폭포와 담소들이 있다.

구월산의 골짜기들에서는 한이천, 한일천, 남대천, 구월천, 산촌천 등의 하천들이 흐른다. 구월산의 북쪽비탈면으로 흘러내리는 한이천상류의 삼수동에는 부연, 마연, 요연 등이 있고 산허리에는 7년동안 왕가물이 들어도 마르지 않았다는 이름난 석담이 있으며 서쪽비탈면에는 마당소, 가마소와 같은 소들이 있다. 또한 산중턱에는 교요연이라는 깊은 늪이 있다.

구월산은 황해남도 서부지대에서 대표적인 산림지대로서 산에는 소나무, 참나무, 밤나무, 단풍나무 등의 나무들



삼성사

이 자란다. 그리고 구월산기슭에서는 갖가지 꽃들이 필뿐 아니라 가을철에는 밤, 대추, 감 등의 과일들이 무르익어 이 일대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고 있다.

식물자원이 풍부한 구월산

은 자연공원으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1 200여종의 식물들이 자란다. 이와 함께 산에는 노루, 삿, 꿩, 꿩꼬리, 두견새, 부엉이와 같은 동물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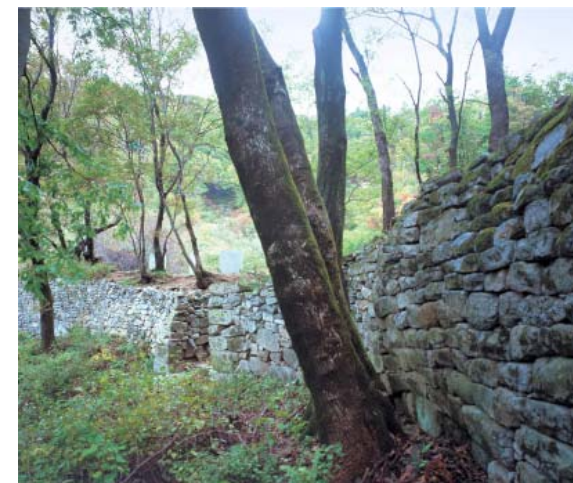
구월산에는 고적과 유물들

도 있다. 오늘 구월산은 탐승지로,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널리 이용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공유일



단풍골 삼형제소



구월산성



구월산부도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